

종합·해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鄭후보 ‘클린 대한민국 만들기’ 공약 제시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부인 민씨 ‘행복배달부’ 2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4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부패사범, 반 인권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진행된 ‘가족행복위원회’ 확대식 인사말을 통해 이를 포함한 ‘클린 대한민국 만들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부터 선거자금을 제외받았다. 거절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된 추미애 전 의원(가족행복위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한편 대통합신당은 정동영 후보 부인 민혜경씨를 내세운 ‘내조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신당 선대위는 이날 발족한 ‘가족행복위’의 ‘행복배달부’ 2호로 민씨를 낙점했다. 1호는 남편인 정 후보. 공식 직책은 아니지만 일종의 명예직이다. 가족행복위는 “가족행복을”을 모토로 유권자들의 자발적 선거운동 참여를 견인해 내는 선대위의 핵심기구로, ‘행복배달부’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책 제안과 각종 아이디어, 민원 등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행복저축은행’에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한다. 민씨는 지난 1일 천태중 삼광사 등 사찰을 찾아 최근 정 후보가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불심’공약에 나선 데 이어 급주에는 신당의 원 부인단과의 오찬과 독거노인 시설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음지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후보 부인의 1천만 원 짜리 명품 가방 소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점을 부각시키면서 ‘차거운 이미지의 특권층 부인’대 ‘따뜻한 이미지의 광범한 주부’로 대비시키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하는 복지시대 열 것”

한나라, 대선 겨냥 ‘10대 정책’ 발표

유류세 인하·사교육비 감축 추진 5개 분야 구성... 鄭과 차별화

한나라당은 4일 차기정부 집권에 성공할 경우 추진할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이항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고령사회가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10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별 정책비교 프로그램’에 제출될 10대 정책은 ‘한나라당이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라는 기치로 경제·민생, 사회, 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이명박 후보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중산층 복원 ▲농어·민·농어촌 선진화 ▲중소기업 및 생계형 자영업자 회생 ▲국토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등 자율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인하, 약가 20% 낮추기, 사교육비

절반 감축, 제2의 새마을 운동 추진, 사회보험료 절반 권장, 한반도대운하 건설, U자형 국토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젊은시절 자신이 봉사한 시간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자원봉사자저축제도, 무담보무보증소액대출제(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이 제시됐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특성화고교 300개 설립,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국토가꾸기를 위한 ‘그린코리아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이밖에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따뜻한 법치와 선진국형 정부 서비스를 실현하는 이른바 ‘알뜰유(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구축 등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화군단(ROTC) 여성 후보제 도입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개됐다. 이 의장은 “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3대 전제는 유능한 정부, 튼튼한 안보, 중산층 복원 등”이라며 “을 대선이 선진국가로 재도약하느냐 재기불능의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산강 뱃길 자전거 탐사

영산강 뱃길 탐사하며 영산강 대운하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과 ‘영산강 뱃길살리기’ 회원 등 50여명은 3일 자전거를 타고 목포 영산강하구연~무안~나주~광주사직 앞까지 영산강 뱃길을 탐사하며 영산강 대운하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진라기자 jrwi@kwangju.co.kr

“주가조작 횡령자금 54억원” 후보 소유 LKe뱅크 입금

정봉주 “은행자료 공개할 것” 박형준 “대포 그만둔 후 입금”

음서넬벤처스코리아(BBK)의 후보의 추가조작 횡령자금 중 일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 계좌로 입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서넬벤처스코리아의 횡령자금 384억원 중 54억이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LKe뱅크 계좌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김경준이 음서넬벤처스에 투자했던 금액을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LKe뱅크 계좌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사실을 은행자료(계좌)를 통해 확인했다”며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만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2004년 1월 17일 법

무부가 미국에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에 첨부된 검찰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횡령자금의 입금내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자료에는 횡령자금 384억이 22차례에 걸쳐 다스, 심택 등에 입금됐는데 그 중 104억원이 50억원과 54억원씩 이 후보의 대학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오리엔트캐피탈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54억원은 오리엔트캐피탈로 입금되지 않고 LKe뱅크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이 주장한 대로 LKe뱅크 통장에 54억원이 보내진 시점은 2001년 10월 16일로 이 후보가 김경준과 사업을 청산한 2001년 4월 18일 이후”라며 “사업관계를 청산한 후에 김경준이 직원을 통해 개설한 LKe뱅크 통장을 이용해 추가조작을 한 것은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문국현 “4년 중임제 개헌할 것”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공식 추대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4일 오후 서울 어린이대공원 돌아트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를 통해 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추대됐다. 문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 재창조를 통해 ‘권력 추구형 정치’를 ‘가치 추구형 책임정치’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를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법국민 개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이 기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까지 다양한 정치체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합의되



창조한국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돌아트홀에서 열린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지명대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제 “햇볕정책 살려 나갈 것”

호남서 표심 다지기 ‘민생투어’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나와 환경, 영광을 돌며 ‘뒷밭’인 전남 표심 다지기를 꾀한데 이어 5일에는 광주시대 재대시장과 복지시설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민생투어’를 이어나간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나주 5일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영산강 둔지에서 열린 국회의원회 추경대회, 금천초등학교에서 열린 ‘금천면민의 날’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오후에는 한국불교대종교 광주·전남총무원 주최로 ‘남북평화공존 기원 대대보살제 및 10만 등 점등법회’가 열린 삼한지대마스크 주공활영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인제가 대통령 김이라고 하는데 지지가 안 올라서 죽을 지경”이라며

“콩나물이 자라듯 쑥쑥 지지율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등을 잘 살려 서로 번영하고 통일을 열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한민국 국장대전이 열린 환경 자연생태공원과 영광 법성포 시장을 방문하는 등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5일 오전에는 광주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50여명과 함께 양동시장과 대신시장, 희망원, 동구노인복지회관 등을 돌며 ‘광주경제살리기’ ‘청년실업해소’ ‘시민 생활안정과 중산층 보호’ 등 경제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鄭 당선 위해 최선

유시민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은 3일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까지 이해 창씨보다 열배, 백배, 천배 낫다”며 “12월 19일까지 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후보 선대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팬클럽 ‘시민광장’ 총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을 문제삼아 정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유 의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 나오지 않아 정 후보와 거리두기를 한다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연합뉴스

2008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일시, 장소, 안내사항. Details include application dates (2007.11.7-11.14), exam dates (2007.11.13), and location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 모집전공 및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예술이론및기획전공(2년) 13명, 문화관광전공(2년) 13명
- 3. 지원자격: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2008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제출서류: 입학지원서(1부), 입학지원서 부본(1부), 입학전형료 납부영수증 1부,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기설계계획서 1부
- 5. 기타사항: 1. 웹 사이트 문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culture.chonnam.ac.kr) 2. 전화문의: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T.062)530-1477~8]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광주광역시, 구인·영업·모임·모집, 사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Contact: (062) 220-0524, 227-9600, 227-9500. Address: 광주시 동구 광안로 107번길 10.

금당부동산

부동산 전문기업. 223-7400, 016-632-5858.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offered.

금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062)236-0764, 010-6889-7100. Locations in Jeonnam and Jeonbuk provinces.